

요한복음 40번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본문: 요한복음 8:31-36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의 원천이자 내용인 주권자, 부활하신 주, 우주의 살아계신 주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사 당신의 자유케 하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I. 왜 우리는 자유가 필요한가?

1.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국가적인 자유, 헌법상의 자유등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제 36년동안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자유를 박탈 당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른다. 군사 독재 하에서 자유를 잃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가운데 핍박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음을 당하기까지도 했다. 이와 같은 억압 가운데 선조들의 피흘린 싸움으로 자유 독립을 쟁취 했고 촛불 혁명으로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 꽃을 피워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요즈음은 검찰 독재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함성이 매주 주말마다 시청앞,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유도 우리에게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자유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 하실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셨다. 31-34 절을 읽어 보자.

-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죄를 범한 자 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 하셨다. 이것은 죄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잘 못된 야망, 돈에 대한 사랑, 알콜과 마약에 대한 중독, 도박, 탐욕, 우상 숭배, 게으름등은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자 해도 거절 할 수 없는 죄

의 무서운 세력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죄의 노예들이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단순한 고통만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알콜 중독자는 술을 마시는 순간 만큼은 얼마나 쾌락과 희열이 있는가?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하는 순간 만큼은 천상을 오르듯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다. 돈에 중독 된자들, 우상 숭배자들도 그 나를 대로의 살맛이 날 때가 있다. 게으른 노예에 빠져 있는 자도 그 나름대로 게으름을 피우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침대를 떠나지 않고 마음껏 잠을 자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과자봉지를 들고 죽창 TV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다. 날마다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빠칭코에서 잼블링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남이 알지 못하는 형언키 어려운 쾌감이 있다. 이스라엘이 광에서 물이 없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파와 마늘을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 것도 노예생활이 마냥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은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이 가져오는 최후의 결과가 무서운 비극을 가져 오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되는 것이다.

2.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의 종은 이 땅에 살면서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더 무서운 죄의 형벌이 있다. 죄의 낙에 빠지다 보면 몸과 인격이 망가져 사회에서 도태당하고 가난과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계속 실패의 연속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굴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이와 같은 실패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세상을 비판하고 이 세상의 삶을 하직하고자 해도 죽음 후에는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으로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 받을 수 없는 것이다.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죄의 종은 영원히 하나님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고 무서운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야한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시급한 것이다. 죄의 종은 현세나 내세에서 항상 비극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

II. 어떻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죄의 노예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죄는 강압적인 욕망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을 우리 앞에 둠으로서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게 만든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 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좋아한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 된 것이다.

죄의 노예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죄의 노예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죄는 저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 없이 공격해 오는 죄의 욕구로부터 벗어 나는 것이요 또한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 나는 것이다. 어떻게 죄의 노예에서 해방 되어 자유케 되는가?

1. 계속 말씀에 거해야한다.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음이란 한 순간에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마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마귀의 말을 듣고 살면 마귀의 제자가 된다. 마귀는 돈이 예수님보다 좋다,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라는 우리 귀에 솔깃한 말만을 한다. 이 말을 듣고 살다 보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자라지 않고 사는가?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와 다름 없이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계속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호시 탐탐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 죄에 팔려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아들이 자유케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애굽나라의 노예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모세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것과 같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하신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만이 앞에서 말한 두 종류의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다. 두 종류의 죄의 속박이란 죄의 세력의 지배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갈 3:13).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뿌리부터 바꾸심으로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리고 그 본질은 우리 구주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모할 만한 분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예수님을 온 세

상보다 더 큰 보화로 볼 때 우리는 저주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란 완전한 참자유다. 예수님 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에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요 인간으로 사셨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 사신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약 27권의 기록이 사실임을 믿는다. 이 책들은 예수께서 역사 속에 사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가 하늘에 오르셨고, 바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 신약 27권의 책은 죽음에서 예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여기 요한복음 (20:27-28)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 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이거나 신화가 아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 나심으로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시다. 그는 단순한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이시다. 로마의 시저나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같이 역사 가운데 살아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음에서 돌아왔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우주의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살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히브리서 7:25, 로마서 8:34). 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공하고 계신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 당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아멘!!!